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공장 준공

- 국내 최초 곡물자동입고 컨베이어 시스템 도입 -



▲ 지난 12일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평택공장 준공식이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평택공장은 전 세계 (주)카길애그리퓨리나 공장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최첨단 사료생산 설비 및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균, 이하 카길) 평택공장이 3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12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국내 축산 태동기인 1967년 설립된 퓨리나코리아(현 카길)는 국내 최초 양계용 완전 배합사료 생산을 시작으로 국내 축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새로운 좌표를 세워나가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지난 2012년 착공에 들어간 평택공장은 전 세계 카길 사료공장 중 최대인 총 5만2,610m²(약 1만 6,000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난 3년간 약 1억 달러(한화 1,15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준공을 축하하며 힘찬 전진을 다짐하고 있다. 좌부터 로스 크리머 미대사관 농무참사관,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이보균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

다. 또한 월간 7만 2,500톤(양돈 3만톤, 축우 2만톤, 양계 2만톤, 예견 2500톤 등), 연간 87만톤의 사료 생산이 가능하며, 각 축종별로 전 공정을 분리해 최적화된 설비를 통해 고품질 사료 생산이 기대된다. 이번에 가동되고 있는 평택공장은 항만의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는 평택당진항에 세워진 공장으로 원료수급 및 운송에 최적 조건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곡물자동입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 자랑거리다. 평택당진항과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 여건을 활용해 원료 곡물이 야적장을 거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바로 입고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간 사료 원료곡물이 야적장 보관과정에서 종종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사료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카길 평택공장 준공식에서는 세레나 린 카길 동물영양사업부 회장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축산인을 대표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등 축산 관련 업계 및 단체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이보균 카길 대표이사는 “평택공장은 고객의 성공과 성장에 초점을 두어 투자되었고, 이러한 투자는 분명한 비전을 봤기 때문”이라며 “오늘 우리는 공장 하나의 준공식을 넘어 한국 축산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 축산업과 고객들에게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배합사료 시장에서 카길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7% 가량으로 평택공장에서만 4%가 넘는 생산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길 평택공장은 카길의 전 세계 사료공장 중 가장 큰 규모로, 향후 최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다면 사료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카길은 평택공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종 업계에 선보일 계획이면서 안전성과 최상의 영양을 확보한 최고 품질의 사료를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해 궁극적으로 축산 농가의 생산성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양계**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